

2021 새해 새 설계

이상의 함평군수

# “지역산업 혁신·서민 생활안정 최우선 군정 목표”



“미래 지역발전은 견인할 새로운 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함평이 잘하고 강점이 있는 것부터 제대로 키우는데 전력하겠습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13일 “그동안 계획했던 것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성장기적인 미래구상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취임 2년차를 맞아 군정 새판짜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역산업의 혁신성장’과 ‘서민 생활안정’을 최우선 군정 목표로 삼았다. 해를 넘긴 코로나19 여파로 내국세와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그동안 지역경제를 이끌어왔던 관광과 농축수산업도 앞으로 여건이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활력과 전락으로 ▲산업 인프라 구축 ▲유망 기업 유치 ▲정주기반 조성 ▲스마트 농업 육성 ▲농·특산물 브랜드 활성화 ▲체류형 관광 활성화 등을 내놨다.

산단 조성을 통한 유망 감소기업 유치와 각 분야별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지역 신 성장동력을 구축하겠다는 게 이 군수의 기본 구상이다.

## 빛그린산단 2단계 조성 박차

### 국립축산과학원 조기 이전

### 호텔·콘도 갖춘 사포관광지 개발

먼저 2023년 준공을 앞둔 ‘빛그린산단 2단계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민관 투자유치 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자촉진보증금, 투자유치보증금 등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광주권 사업(광주글로벌모터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 주거근린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조성될 ‘산단 배후단지 조성사업’도 광주시·전남도와 꾸준히 협의해 속도를 내고,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근로자(가족) 주거단지 조성사업’도 LH와 연계해 산단 준공 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역대표산업인 축산업은 약 500억원이 투입되는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필두로

## 2021년 주요 사업

- ▲빛그린산단 배후단지 조성
-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
- ▲국립축산과학원 조기 이전
- ▲지역화폐 ‘함평사랑상품권’ 확대
- ▲함평천지공원 등 체류형 관광 구축
- ▲함평을 도시뉴딜로 구도심에 활력
- ▲함평 농·특산물 브랜드 리뉴얼

새롭게 탈바꿈한다. 지난해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83억원의 국비 지원과 조세 감면 등 총 73종의 규제 특례혜택을 받은 만큼 내년 말까지 축산가공단지, 6차산업 지원센터 등 기반시설을 차례로 완공할 방침이다. 여기에 오는 2027년까지 7700여여원이 투입되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을 추진, 함평발 국내 축산업 재편을 시작한다.

이 군수는 함평의 중장기 미래발전 계획에 대한 기본구상도 밝혔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체류형 관광, 함평을 도시뉴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유통 등 3가지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함평엑스포공원과 함평천·화양근린공원과 같은 기존의 지역 대표 자원들을 연계해 ‘함평천지공원(가칭)’을 조성한다. 짚라인, 야외자동차극장, 수산봉 전망타워, 스카이워크 등 각종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용천사권 개발사업, 대동댐 탐방로, 해양경관 조성사업을 비롯해 각종 체험시설(루지)과 호텔·콘도 등이 들어설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 사시사철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한다.

이 군수는 “누구나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망설임과 두려움이 있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고 해내야 하는 일”이라며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군민의 지혜와 단합된 힘으로 새로운 함평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은화 기자 hwang@kwangju.co.kr

## 담양군, 오락가락 입찰로 소송 자초...승진임용 규정 멋대로

### 전남도 감사, 부적정 행정 69건 적발 대나무 축제 등 보조금 집행도 허술

담양군이 오락가락 입찰 계약으로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또 축제 보조금을 허술하게 집행하고 직원 승진임용 규정도 멋대로 적용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담양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69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해 3명을 징계하고 33억8000만원의 회수·추징·감액하도록 했다.

담양군은 담양시장 재건축 설계용역 계약 업무 추진과정에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참가격자에게 입찰서 제출 마감 7일 전까지 입찰 참가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입찰 참가 통지 없이 지방경쟁입찰을 공고해 개발 결과 최저가

격을 제시한 1순위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입찰 참가 통지를 받지 못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담양군은 기존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했다.

이번에는 기존 입찰공고 1순위 업체가 담양군의 재공고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진공농축기 구매 수의계약을 하면서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해당 업체에 3900만원 상당의 수수 특혜를 부여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2017~2019년 대나무 축제와 산타 축제 추진 위원회에 축제 경비 28억원을 지출하면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지 않고 행사 대행 용역 등 일부 사업(약 6억원) 대상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기간 전남도지사의 허가 없이 1억여원의 기

부금품을 받아 축제 관련 경비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축제위원회가 보관해야 하는 정산 서류 원본을 담양군이 갖고 있다가 지난해 1월 군정 내 사무실 화재로 축제 관련 집행 서류들이 소실되기도 했다. 근무성적 평정(근평) 등 인사 운영 부적정 사례도 드러났다.

2018년 8월 행정 6급 승진임용 범위를 10위에서 16위로 확대하면서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을 직원이 승진임용됐다. 2017년에는 근속승진 심사 당시 7급 재직 기간인 12년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일부 직원을 근속승진 임용하기도 했다.

보건소 치매 전담 인력을 채용하면서 치른 면접 시험에서는 면접위원이 A 응시자에게 85점을 부여했으나 83점으로 집계하고 불합격 처리해 재시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에너지저렴마을을 조성한 나주시 공산면 면소재지.

(나주시 제공)

## 나주시 원도심 2100가구 도시가스 공급

### 2025년까지 2차 먼단위 공급망 구축

나주시는 원도심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 말까지 총 82억 원을 투입, 나주 원도심 일대와 영산포, 남평 등 원도심 권역 단독주택 2100여 가구에 도시가스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나주시는 애초 1200 가구 공급이 목표였지만 이보다 배가량 많은 세대로 늘었다.

그동안 경제적 부족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비싼 LPG나 석유 등을 사용했던

주민들이 연간 연료비 35%가량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나주시는 설명했다.

나주시는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124억원을 들여 제2차 도시가스망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차 사업은 원도심 지역을 벗어난 면 소재지 등으로 38km에 달하는 배관을 설치, 1100여가구에 도시가스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나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공산과 왕곡, 반남 등 3개 면 지역 주택 330곳에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을 완료한 데 올해 세지·봉황면 지역 476가구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 장흥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선정...국·도비 18억원 확보

### 32억 들여 328개소 태양광 발전시설

장흥군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장흥읍이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 두가지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장흥군은 태

양광·태양열을 설치해 주민의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목표로 추진한다.

장흥군은 이번 선정으로 국비 16억원과 도비 2억 원을 지원받고 군비 10억원, 자부담 4억원 등 총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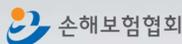
오는 2월부터 장흥읍 일대 주택 등 민간건물 326 곳, 토요시장 등 공공건물 2곳 등 총 328개소에 신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 255곳, 태양열 73곳을 설치한다.

주택에 보급형 3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매월 발전량 324kWh를 생산, 월 평균 5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장흥=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



#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